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근거를
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
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세부절차 근거 마련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출배경

○ 농촌체험관광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·문화, 자연경관 등
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·휴양·숙박·음식

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촌의 사회·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에게 농어촌의 가치를 인식시켜 도내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

-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험객의 발길이 끊어진 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, 국내 여행객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
- 이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5조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

다. 상위법령 검토

- 「공직선거법」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, “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(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없다.” 고 명시하고 있음

- 또한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4호나목에 따르면, “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”는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
-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않으므로, 본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

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코로나19의 영향과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관광객에게 외면받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체험객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(타당성) 이에 따라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짐
- (법적합성) 「선거법」 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환급

을 통해 방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

다만,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세부 추진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 해야 할 것임